

통일 칼럼

정상회담과 한반도 논의

미중 정상회담을 시작으로 동북아를 둘러싸고 주요국 정상들의 만남이 잇따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다카이치 일본 총리와 경북 안동에서 한일 셔틀 외교를 재가동하며 북한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베이징을 찾아 시진핑 주석과 만나 한반도에 대해 언급했다. 이런 가운데 시진핑 주석이 이르면 다음 주 북한을 방문할 가능성이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재명 대통령이 다카이치 총리를 위해 마련한 특별한 친교 행사가 있었다. 국민 방문에 준하는 환대 속에 열린 회담에서 두 정상은 불안정한 중동 정세 속에서 한일, 한미일 협력 강화 의지를 다졌다.

북한 문제와 한반도 평화를 위한 노력도 심도 있게 논의됐다. 이 대통령은 남북이 평화롭게 공존하고 함께 성장하는 '싸움 필요가 없는 평화의 한반도'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을 설명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 등을 논의했다며, 한일, 한미일



정복규
논설위원

이 긴밀히 연계해 북핵 문제 등에 대응해 나갈 것을 재확인했다고 말했다.

이번 한일 정상회담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베이징 회동을 하루 앞두고 열렸다. 지난해 9월 중국 전승절 열병식 이후 8개월 만에 마주 앉은 중러 정상은, 2개의 공동성명과 4여 건의 협력 공문을 체결하며 밀착을 과시했다.

한목소리로 미국에 대한 견제 발언을 쏟아내던 중러 정상은 한반도 현안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한 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것

이 국제사회의 공동 이익에 부합한다면, 외교적 고립과 대북 제재, 무력 압박으로 북한을 위협하는 것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관련국들은 역내 긴장을 고조시키고 군비 경쟁을 자극하는 행위를 멈춰야 하며, 한반도 내 전쟁 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실질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번 중러 정상의 공동성명에는 북한 비핵화와 관련된 언급은 포함되지 않았다. 북한 비핵화와 관련된 내용은 지난해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미중 정상회담에서 나왔지만, 이번 중러 정상의 공동성명에는 북한 비핵화와 관련된 언급은 포함되지 않았다. 북한 비핵화와 관련된 내용은 지난해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미중 정상회담에서 나왔지만, 이번 중러 정상의 공동성명에는 북한 비핵화와 관련된 언급은 포함되지 않았다.

미국 백악관은 미중 정상회담 결과에 담긴 설명자료, 팩트시트를 통해 양국 정상이 북한 비핵화에 대한 공동 목표를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최근 미국 주요 안보 문건에서조차 자취를 감췄던 '북한 비핵화'가 이번에 다시 등장한 배경에는, 향후 북한과의 협상 국면에 대비하려는 미국의 요구가 반영됐을 거란 분석이 나온다.

이번 미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 북미 간 깜짝 회동은 결국 불발됐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을 마치고 돌아가는 전용기에서 또다시 미묘한 발언을 남겼다.

최근 중동 사태 등 국제 정세로 인해 미국에서 북한 문제가 우선순위에선 밀렸지만, 여전히 북한과 대화하고 싶은 의지는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시진핑 주석이 조만간 북한을 방문할 가능성이 거론돼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시 주석의 방북이 성사된다면, 중국이 북미 대화를 위한 중재자 역할을 할 지도 주목된다.

사설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이재명 정부가 취임 1년을 맞는다. 국민들은 정부가 안정적으로 국정 운영을 해왔다고 평가하면서도 경제 성장과 실용주의 국정기조 속에 사회적 소수자의 목소리는 덜 부각됐다고 지적했다.

정부 출범 당시 강조했던 것들이 제도화되거나 구조화하진 않았다고 지적하는 것이다. 주식시장이 들쭉거리고 코스피가 8000을 찍어도 내 삶이 달라지지 않았다고 아우성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것이 현실이다.

청년, 취약계층, 하청·협력업체 노동자, 소상공인 등 산업 생태계 전반에 대통령과 정부가 좀 더 집중을 해야 한다는 평가다. 특히 불평등 완화 문제에는 상대적으로 소홀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대통령은 산재 문제를 '걸리면 패가망신한다'는 식으로 접근하고 있다. 그러나 산재는 기본적으로

예방이 중요하다. 정부는 특수고용·프리랜서·플랫폼 노동자 등 사용자에게 종속돼 일한다.

하지만 현행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 제정을 추진해야 한다. 차별금지법 제정은 담보 상태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7월3일 취임 후 첫 기자회견에서 차별금지법을 두고 "중요한 우리 사회의 과제 중 하나이기는 한데 민생과 경제가 더 시급하다고 했다.

갈등 요소가 많은 의제는 집중적인 사회적 토론이 필요하다. 민주주의를 제대로 구현하려면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

권력구조 개편뿐 아니라 기후·노동·복지권 등 기본권을 강화하는 내용을 개헌안에 담는 것이 중요하다.

세월호 12주기 추모

세월호 참사 12주기를 맞아 전남 목포에서 한 달간 다양한 추모행사가 이어졌다. '세월호잊지않기 목포지역공동실천회의'는 지난 5월 1일부터 30일까지를 추모 기간으로 선포하고, 전시·상영회·기록·문화제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들을 진행했다.

목포 원도심 등궤리에서는 '세월호 참사 12주기 기억전시회'가 열렸다. 강연회 작가를 포함, 전국 미술작가 17명이 참여, 참사의 아픔과 희생자를 향한 위로를 담은 작품을 선보였다.

목포 아트시네마와 독립영화관 시네MM에서는 15일부터 18일까지 '기억상영회'가 열린다. 이 기간 '주희에게', '제로섬', 'S.E.W.O.L.' 등이 상영됐다.

윤슬지 감독(영화 제로섬)과 제이슨 버니 감독(영화 S.E.W.O.L.)이 참여하는 관객과의 대화도 열렸

다. 핵심 행사인 '세월호 참사 12주기 목포기억식'은 세월호 선체 앞에서 열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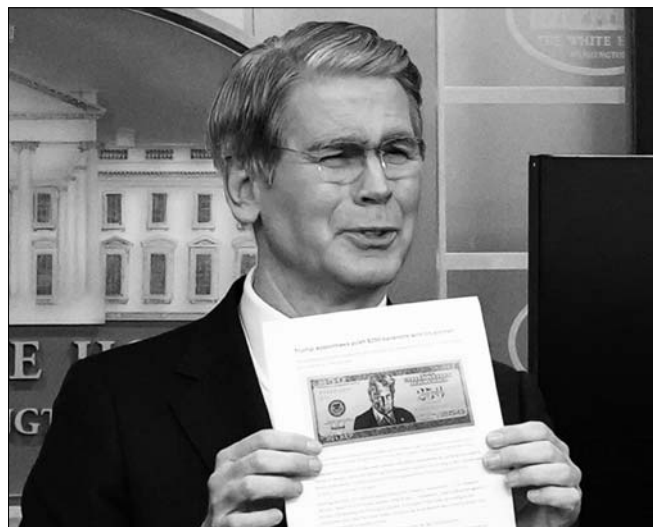
지역사와 추모사, 음악공연, 현화에 이어 유가족과 시민들이 노란 종이비행기를 날리는 퍼포먼스도 진행됐다. 4·16 단원과 가족협의회는 물론 이태원·제주항공 참사 유가족도 함께해 의미를 더했다.

이어 19일 목포 평화광장에서는 '기억문화제'도 개최됐다. 청소년들이 참여하는 공연과 기억 편지 낭송 등 프로그램과 '진실규명 박터뜨리기'와 강강술래 등 시민 참여 행사가 진행됐다.

이밖에도 '제5회 416 생명과 안전 전남 청소년 작품공모전'도 열렸다. 세월호 이후 반복되는 사회적 참사에 대한 반성과 책임 이행이 있어야 안전 사회로 나아갈 수 있다.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트럼프 얼굴 들어간 250달러 지폐 나올까?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이 지난 28일(현지 시간) 백악관 브리핑룸에서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얼굴이 들어간 250달러짜리 지폐 시안을 기자들에게 보여주고 있다.

EU, 민주콩고에 에볼라 바이러스 관련 의료물품 지원



지난 28일(현지 시간) 콩고민주공화국(민주콩고) 부니아 공항에서 근로자들이 에볼라 바이러스 현장 의료진들을 지원하기 위해 유럽연합(EU)이 기부한 의료·구급 물품을 하역하고 있다.

사내·외기고 및 칼럼은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전주매일

독자 여러분의 의견이 담긴
기고와 투고를 기다립니다.

(우)560-912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 568-80 승주빌딩 4층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행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어려움 속 시원하게 곁에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